[로스쿨 소식]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고사장, 서울·대전·부산·대구·광주에

–제8회 변호사시험, 내년 1월 8~12일 실시… 4월 26일 합격자 발표 예정

내년 1월에 치러지는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는 고사장이 서울과 대전에 이어 부산, 대구, 광주 등 5대 권역으로 확대돼 수험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8일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 기존 서울, 대전 권역 외에 부산과 대구, 광주 권역 시험장이 추가로 확대돼 전국 5대 권역 8개 시험장에서 변호사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지역별 시험장소는 서울 4곳(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한양대학교·건국대학교), 대전 1곳(충남대학교), 부산 1곳(부산대학교), 대구 1곳(경북대학교), 광주 1곳(전남대학교)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 정원은 2000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3개교 1000명의 학생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수학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호사시험 고사장은 서울과 대전 2개 지역에만 국한돼 시험에 응시하려는 지방 로스쿨생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법무부는 이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와 간담회를 갖고 변호사시험 고사장을 전국 5대 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제8회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응시자격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이다.

응시원서는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다. 인터넷 사이트 (http://moj.uwayapply.com)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응시 수수료는 20만원이다.

법무부는 오는 11월 21일께 관보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시험 일정과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할 방침이다.

합격자는 내년 4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012~2014년에 로스쿨을 졸업한 1,2,3기생들은 응시횟수 제한규정에 따라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